국민경제자문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기획예산처 공동 세미나

2026.9.16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새로운 경제 · 사회 패러다임 전략

원 승 연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목차

1 한국경제의 좌표

2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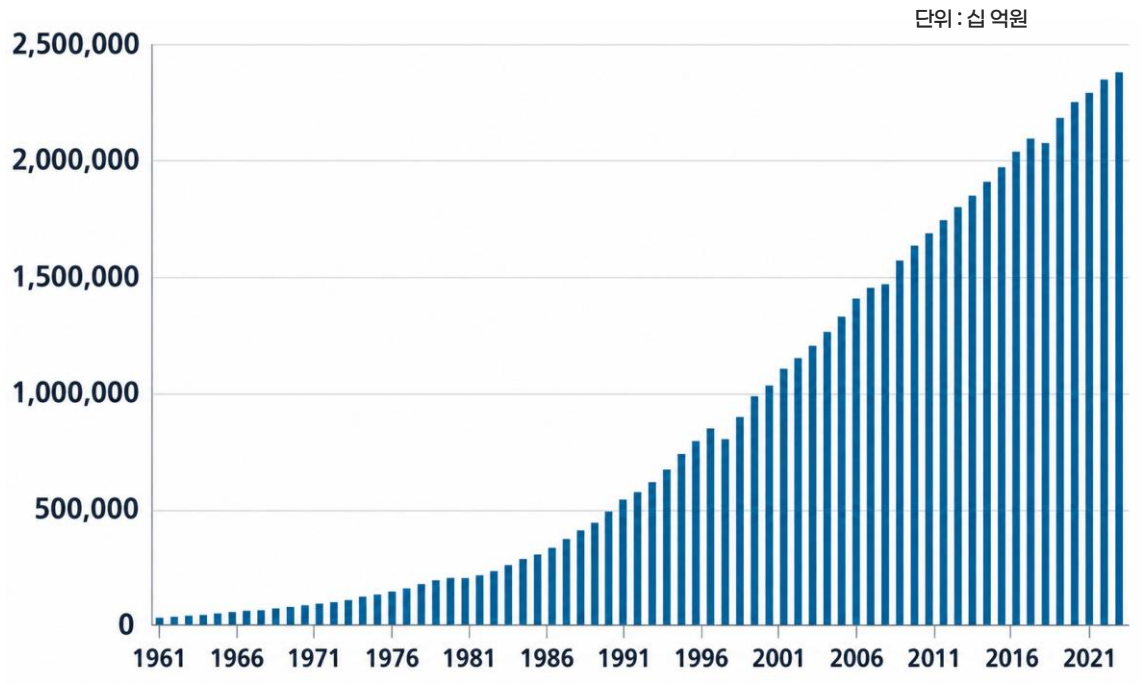
3 미래 세대와 동행을 위한 전제

4 미래를 위한 전략

한국경제의 성장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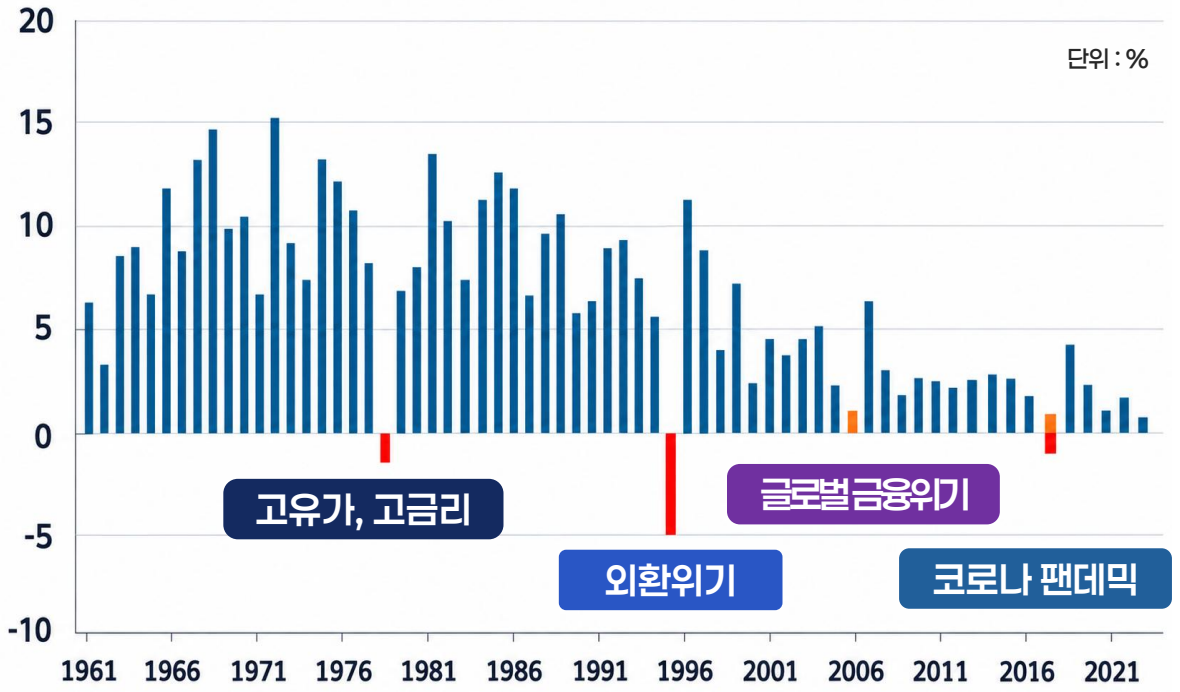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대외적 위기에 대한 `도전`과 `대응`의 역사

실질 GDP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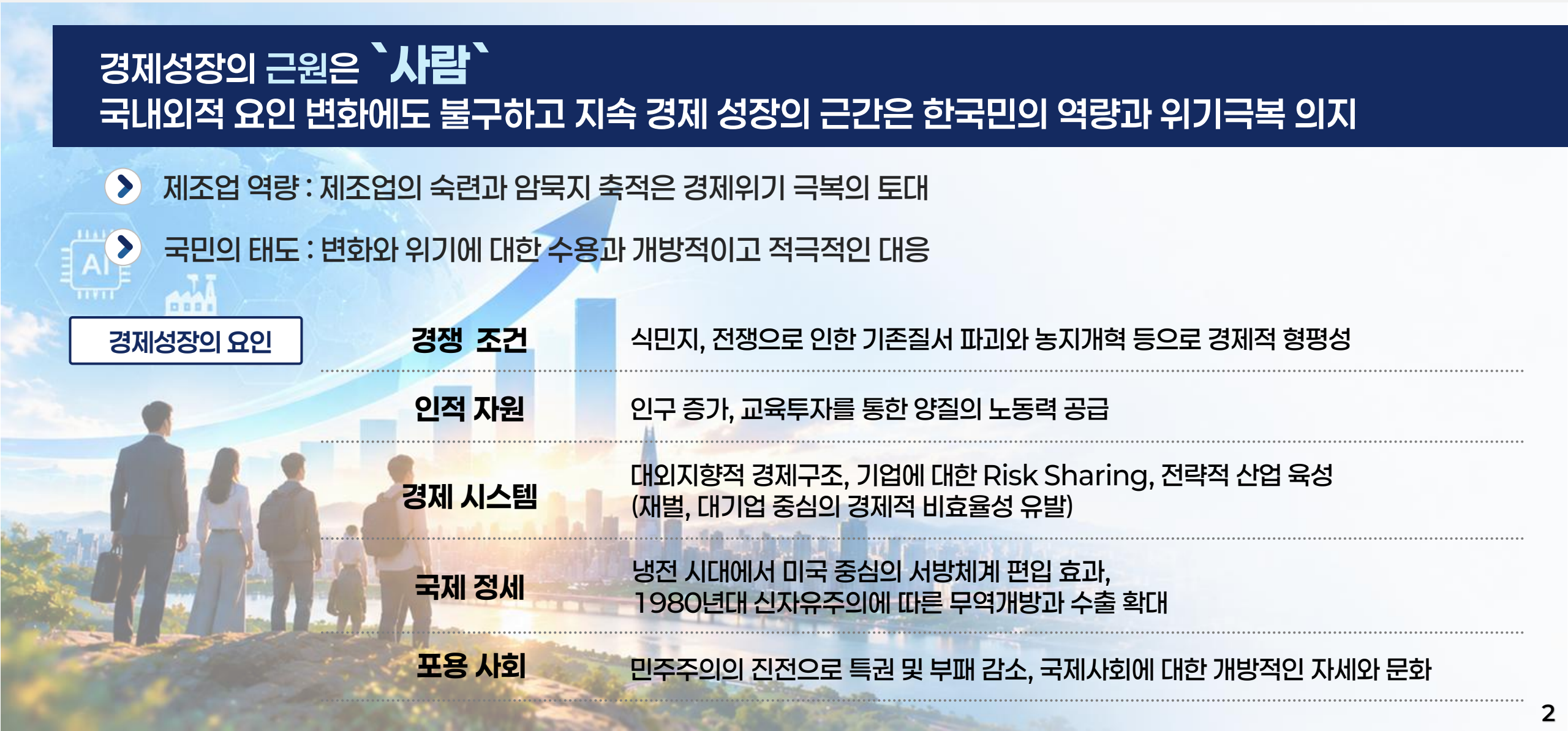
경제 성장률



경제성장의 근원

경제성장의 근원은 `사람`
국내외적 요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경제 성장의 근간은 한국민의 역량과 위기극복 의지

- 제조업 역량 : 제조업의 숙련과 암묵지 축적은 경제위기 극복의 토대
- 국민의 태도 : 변화와 위기에 대한 수용과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경제성장의 요인

경쟁 조건	식민지, 전쟁으로 인한 기존질서 파괴와 농지개혁 등으로 경제적 형평성
인적 자원	인구 증가, 교육투자를 통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
경제 시스템	대외지향적 경제구조, 기업에 대한 Risk Sharing, 전략적 산업 육성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적 비효율성 유발)
국제 정세	냉전 시대에서 미국 중심의 서방체계 편입 효과, 1980년대 신자유주의에 따른 무역개방과 수출 확대
포용 사회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특권 및 부패 감소,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와 문화

역사의 **변곡점**

국제 경제질서와 체제의 전환기

- **AI 혁신에 의한 전세계적인 경제 · 사회 구조의 전환**
- 세계화의 퇴조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 미 · 중 갈등 확산

한국경제 내부의 전환 필요성

- **확정**된 인구구조(적어도 2045년)의 경제적 효과와 저성장 국면
- 기성세대의 사회적 갈등 해결 능력의 한계

2026년 한국은 역사적 변곡점의 시기

- 국내외 전환 대응에 **향후 경제적 성패가 결정되는 임계점**
- AI 혁신과 미 · 중 간 갈등의 반사이익이라는 기회의 활용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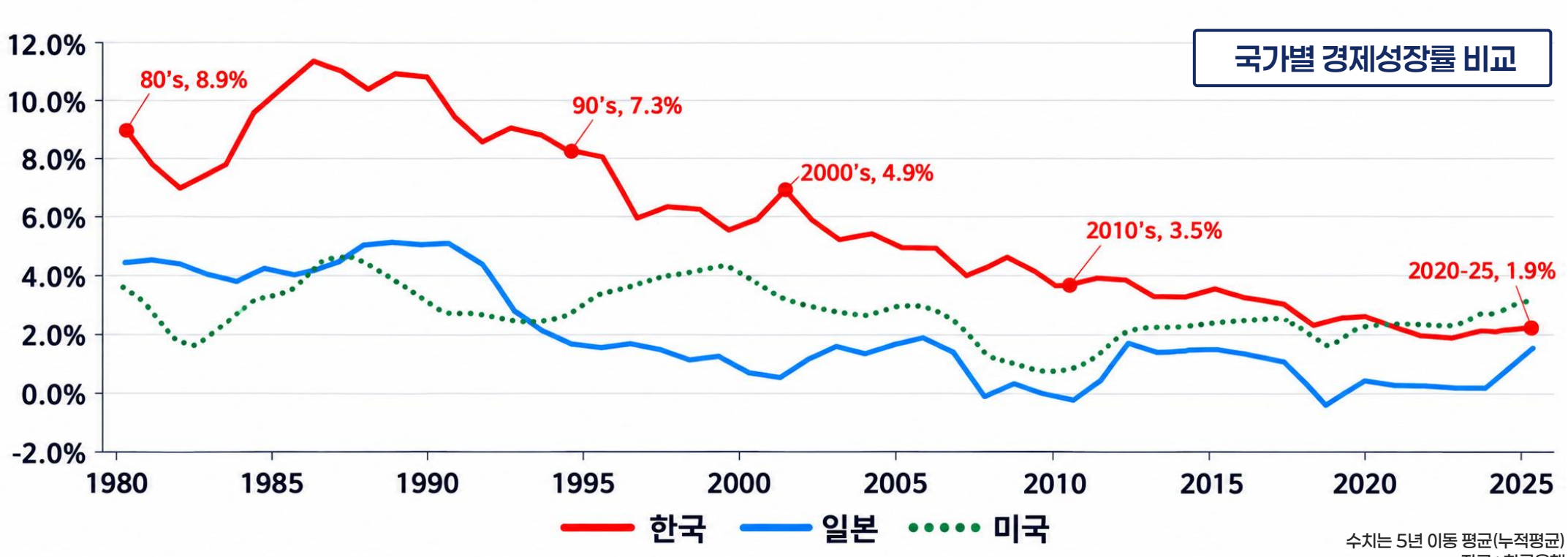
역사적 변곡점의 극복 해법은 사람

- 역사의 방향은 기술과 환경이 아닌 **국민적 의지와 노력**이 결정
-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기초한 대한민국 비전의 재구성과 실행

경제 성장 (장기성장률)

한국의 장기성장률 추세적 하락은 불가피

-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방지를 위한 지속적 혁신과 개선 긴요
-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수치는 5년 이동 평균(누적평균)
자료 : 한국은행

경제 성장 (잠재성장률)

한국의 미래 잠재성장률 하락 추정

- 2025~30년 잠재성장률 : 2% 수준
- 인구 감소(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GDP(경제규모)의 증가율 하락
- 최근 성장률 반전을 지속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는 것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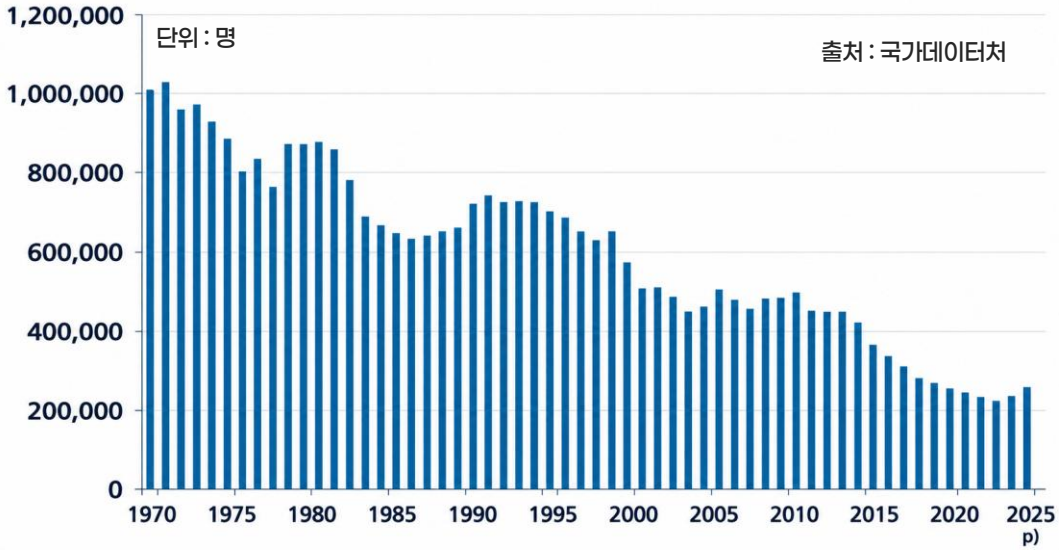
잠재성장률 추정치

연도	성장률	자본성장률 (기여도)	노동성장률 (기여도)	총요소 생산성*
2030	1.68%	2.59% (.93%p)	-0.39% (-.25%p)	1.00%
2040	0.97%	1.80% (.65%p)	-1.07% (-.68%p)	1.00%
2050	0.89%	1.30% (.47%p)	-0.90% (-.58%p)	1.00%
2060	0.44%	0.97% (.35%p)	-1.41% (-.90%p)	1.00%
2070	0.38%	0.67% (.24%p)	-1.34% (-.86%p)	1.00%

• 총요소생산성은 1%로 가정

출처 : 이윤수, 한종석, 신동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서(2023)

연도별 출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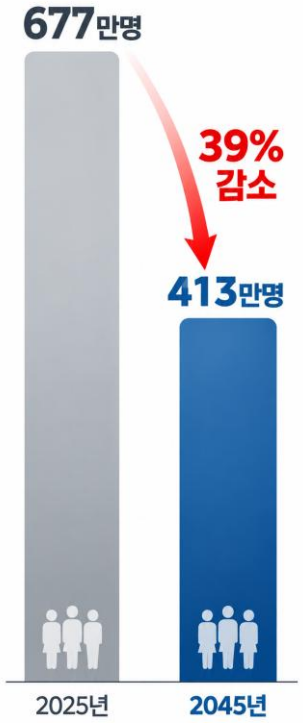


경제 성장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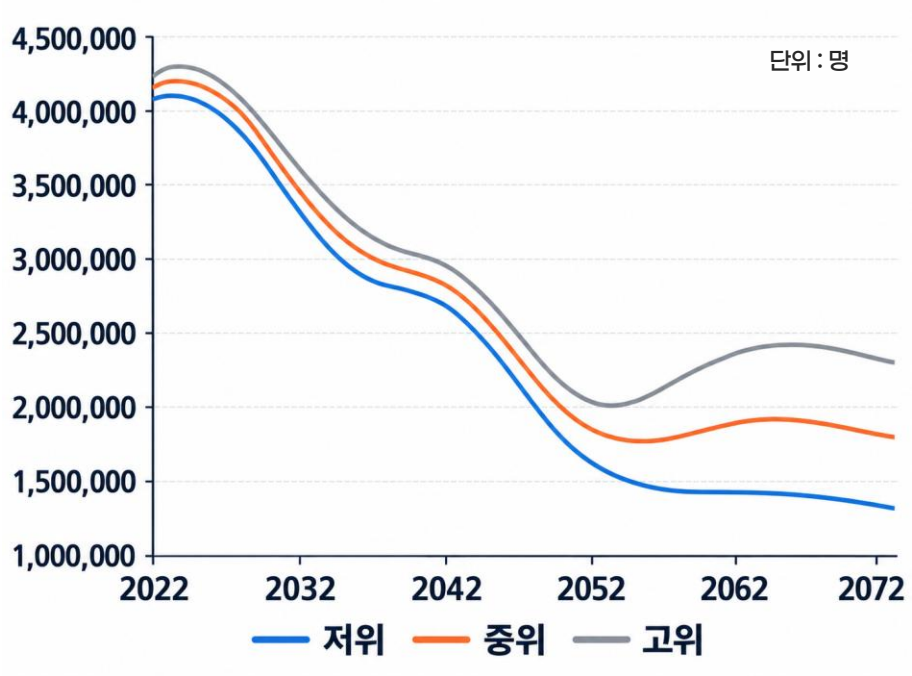
한국은 생산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인구 감소국

- 특히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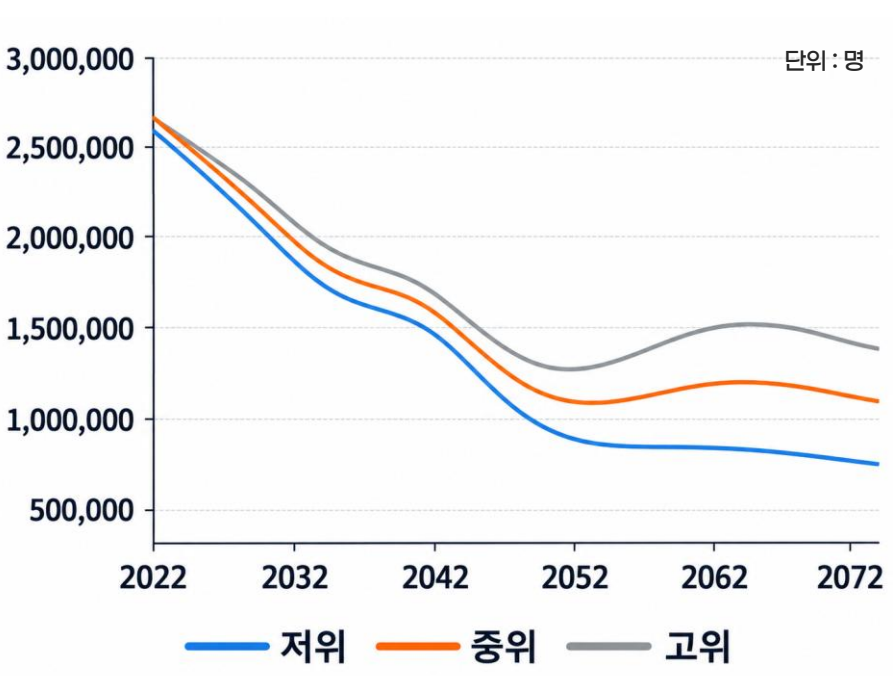
출처 : 이철희(2024),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p164



대졸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추계



고졸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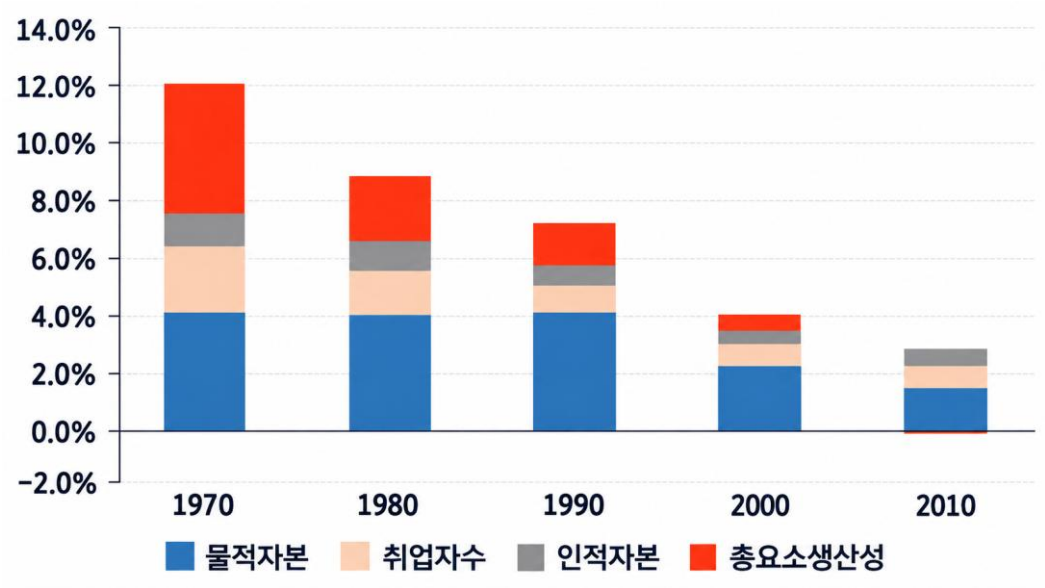


경제 성장 (생산성과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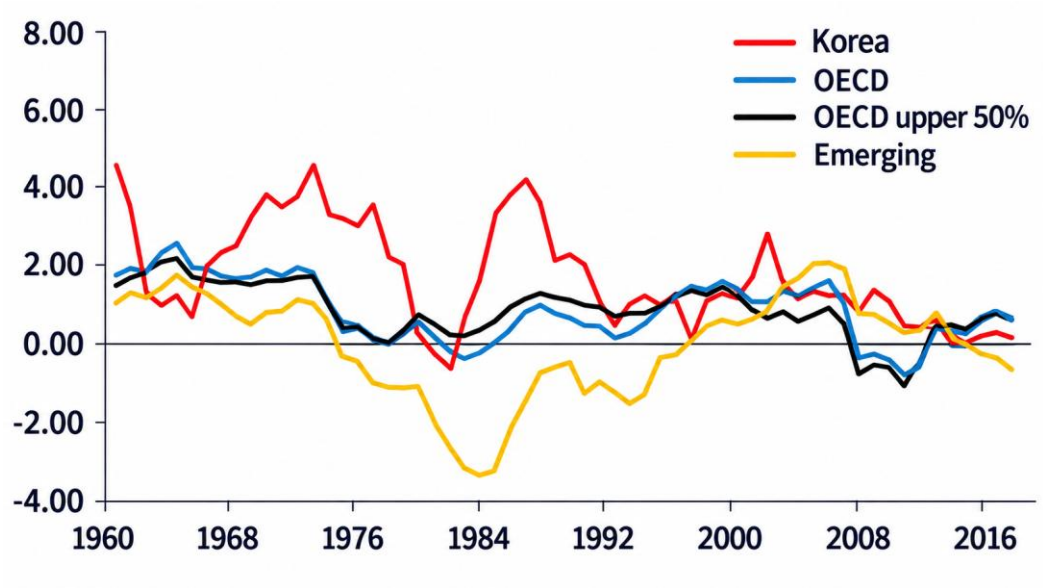
생산성 저하가 잠재성장률의 하락 원인

- 2010년대 이후 생산성 하락하여 OECD 평균 보다 낮은 수준

성장 회계



TFP 생산성의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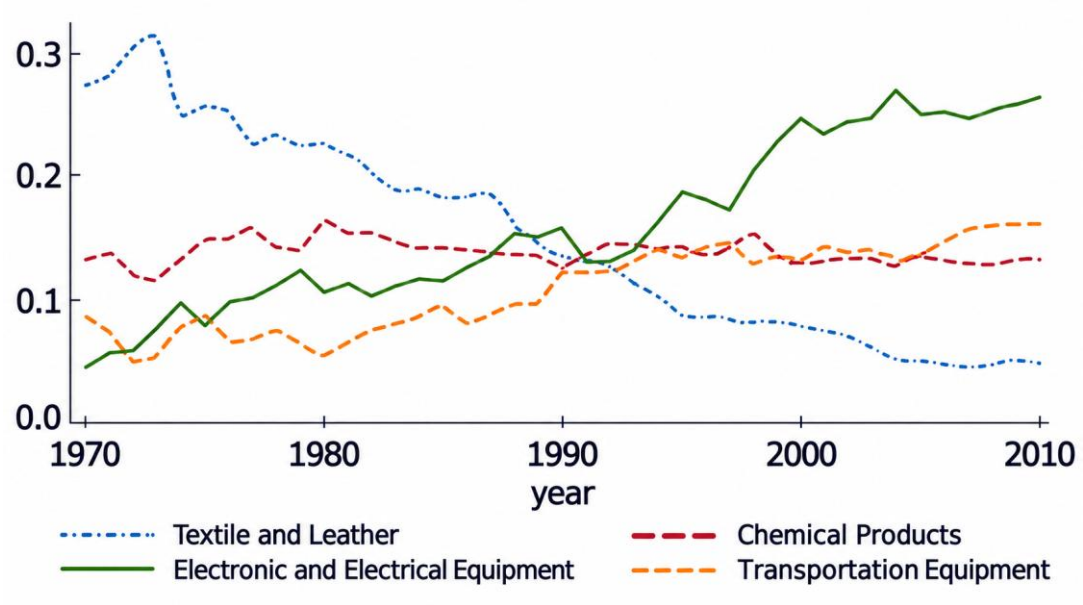
출처 : 이윤수, 한종석, 신동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서(2023)

경제 성장 (생산성과 혁신)

혁신 및 구조 개선 정체가 생산성 하락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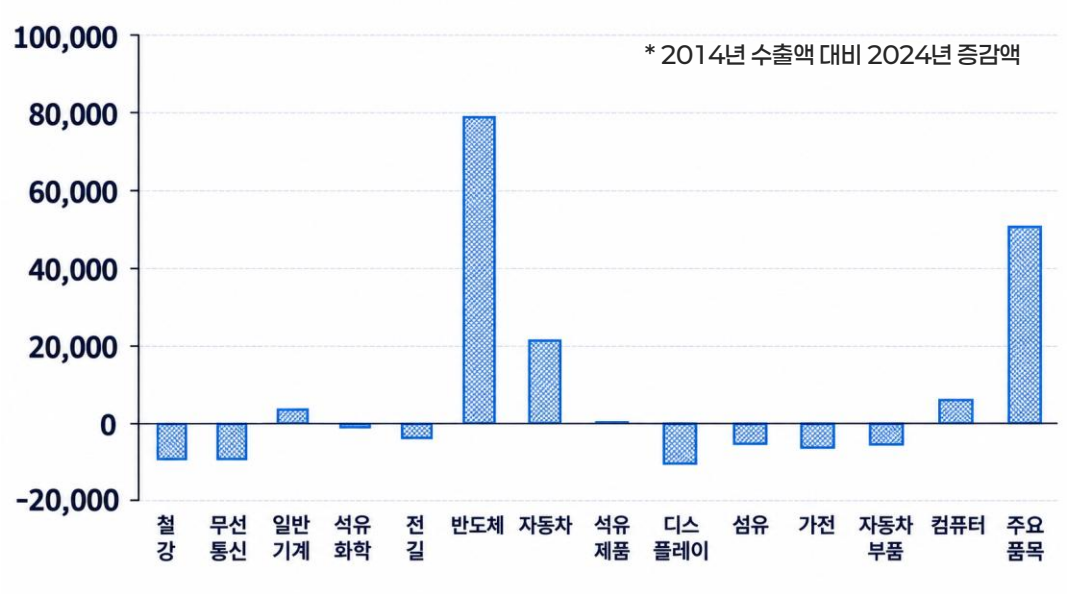
- 미래성장 동력 발굴의 정체 : 반도체 이후 신성장산업의 출현 부재
- 다수의 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 (10년간 수출 감소 주력품목 증가)

한국 주력산업의 전환 추세



출처 : Lee, Y.(2021), World Bank Policy Working Paper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감액



출처 : 국가데이터처

경제 성장 (기업역동성)

혁신을 통한 신규기업 및 모험자본 성장 부진 등 기업 역동성 저하

시가총액 TOP 10 중, 미국 5개 한국 3개 (재벌계열 제외시 2개) 진입

미국 기업 TOP 10 (시가기준)

2005	2010	2024
Exxon Mobile	Exxon Mobile	Microsoft
General Electric	Apple	Apple
Microsoft	Microsoft	**Nvidia**
Citi Group	Chevron	Alphabet / Google
Bank of America	Berkshire Hathaway	**Amazon**
Wal-Mart Store	General Electric	**Meta / Facebook**
Procter & Gamble	IBM	Berkshire Hathaway
Pfizer	Alphabet / Google	**Eli Lilly**
Johnson & Johnson	Wal-Mart Store	**Broadcom**
AIG	JPMorgan Chase	JPMorgan Chase

한국 기업 TOP 10 (시가기준)

2005	2010	2024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국민은행	POSCO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POSCO	현대모비스	현대차
우리금융	LG화학	**셀트리온**
하이닉스	신한지주	기아차
LG필립스 LCD	KB금융	**KB금융**
SK텔레콤	삼성생명	**NAVER**
신한지주	기아차	HD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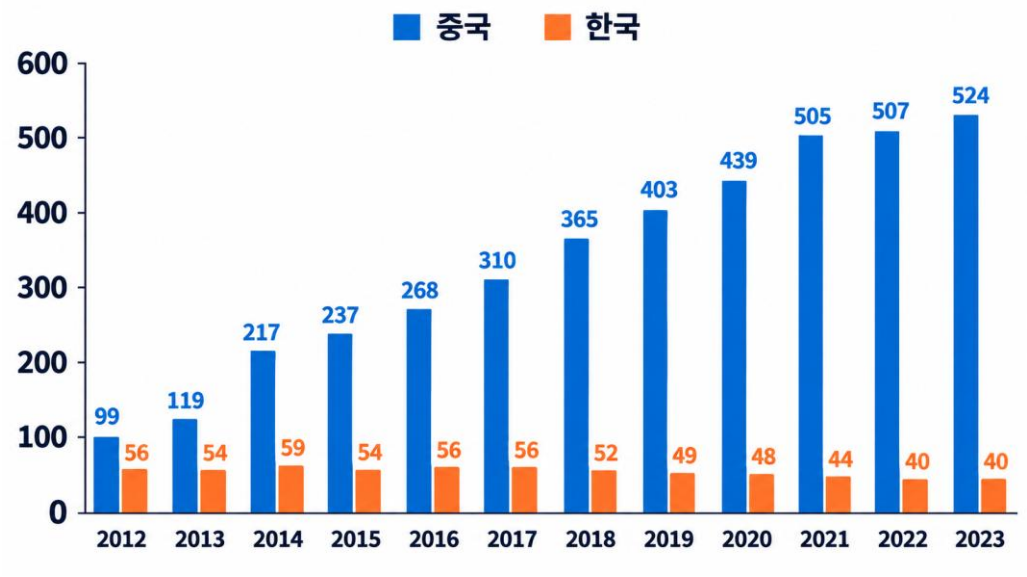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경제 성장 (대중 경쟁력)

대중 경쟁력 저하, 반도체 제외 중국 제조업 경쟁력은 이미 한국보다 크게 앞선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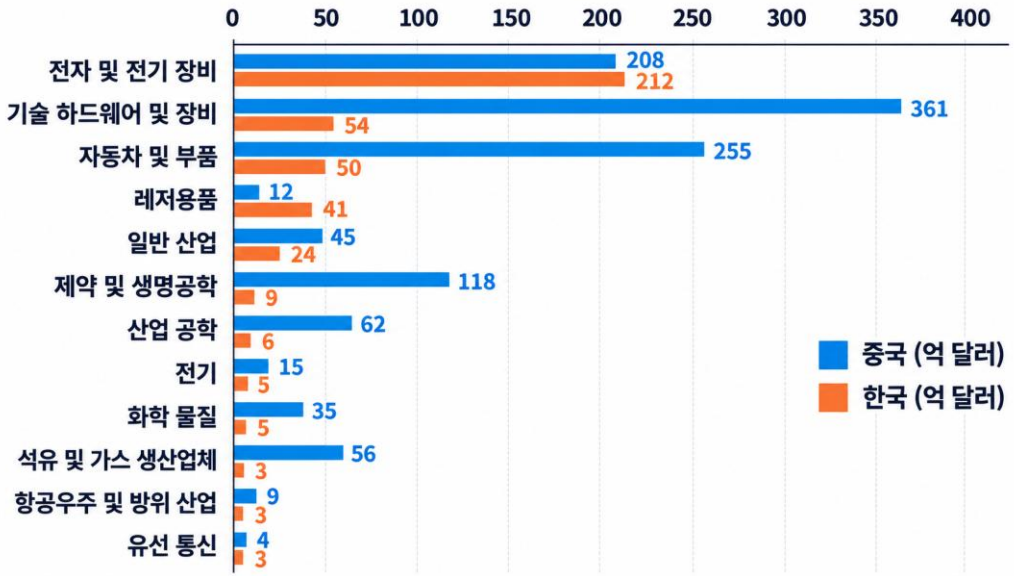
- 제조업 44개 기술 중, 37개 1위(25개는 기술 독점력) 출처 : 호주전략연구소(ASPI)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제조업(반도체 제외)은 중국발 위기로 **산업 부식 상태**에 있음 출처 : Economist, 2026.5.27

한국과 중국의 R&D 투자상위 2천개사 중 기업수



자료: European Commission, The 2024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한국과 중국의 업종별 투자액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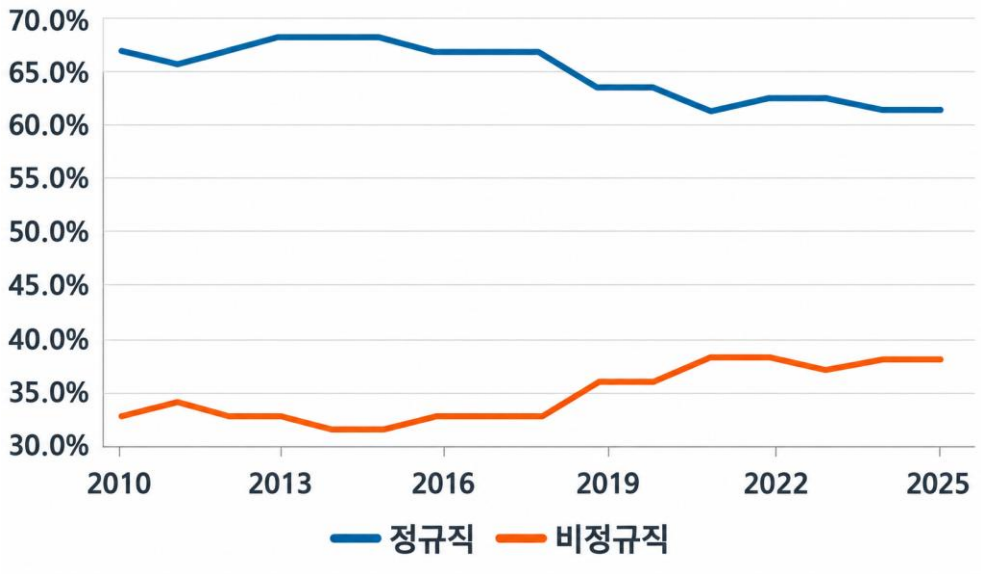


국민의 삶의 질과 분배구조 (고용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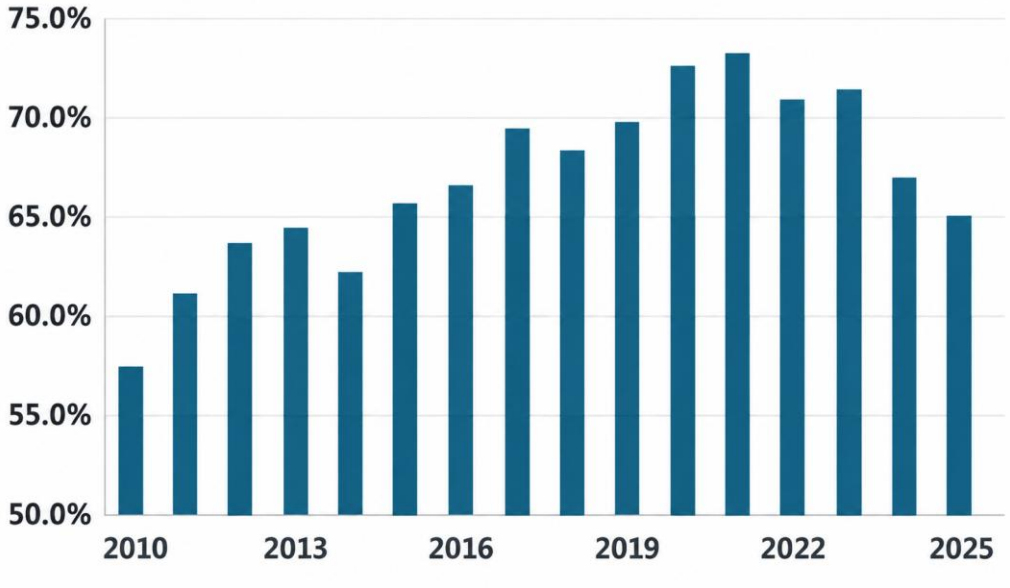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고용의 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 하락

- 비정규직 비중 증가 / 비정규직 임금 비율(정규직 대비) 다시 하락

정규직 /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 (시간당 임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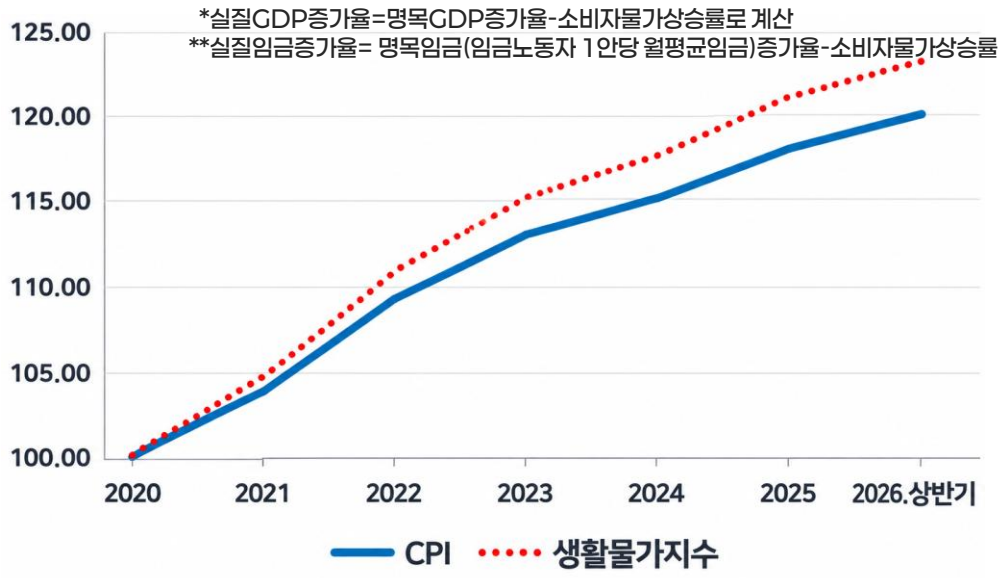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국민의 삶의 질과 분배구조 (물가와 임금)

높은 생활물가 상승에 비해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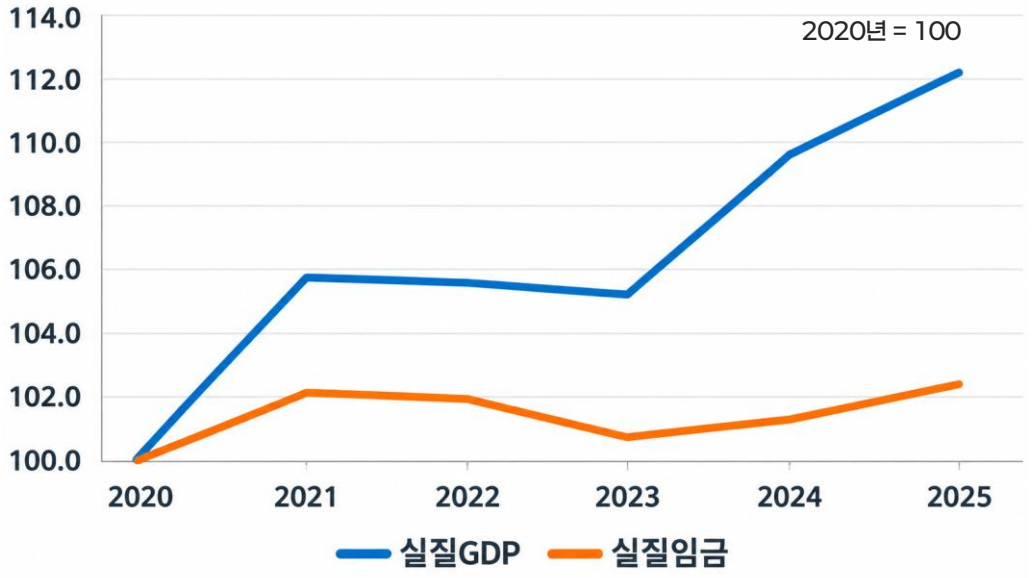
- 2020년 이후 물가상승 보다 생활물가는 더 높은 상승을 보임
-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경제성장률보다 매우 낮음

물가지수 (연말기준)



출처: 국가데이터처

실질 GDP와 실질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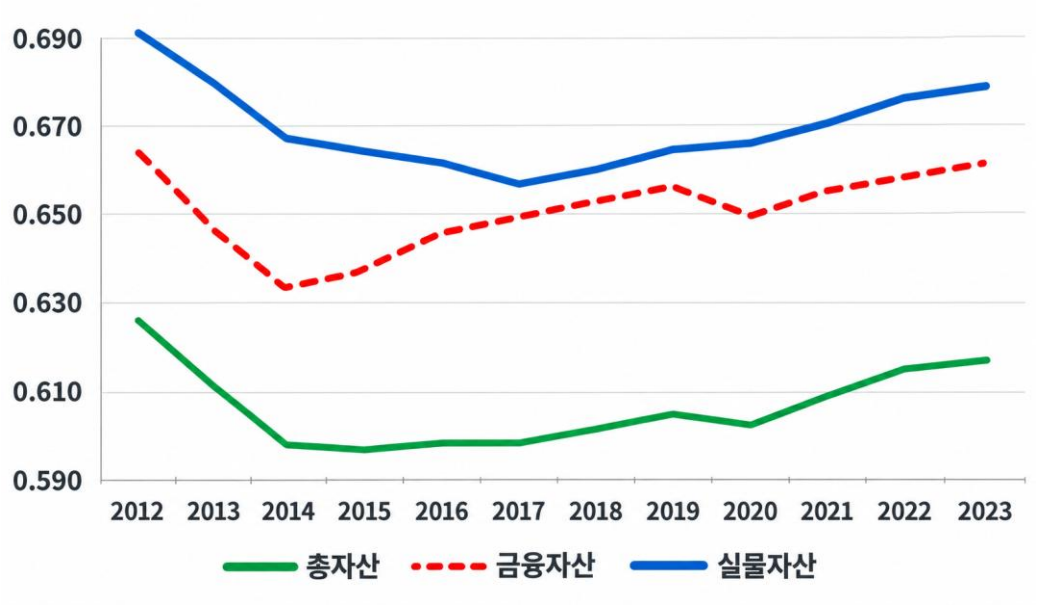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민의 삶의 질과 분배구조 (불평등)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 심화 (부동산가격 상승이 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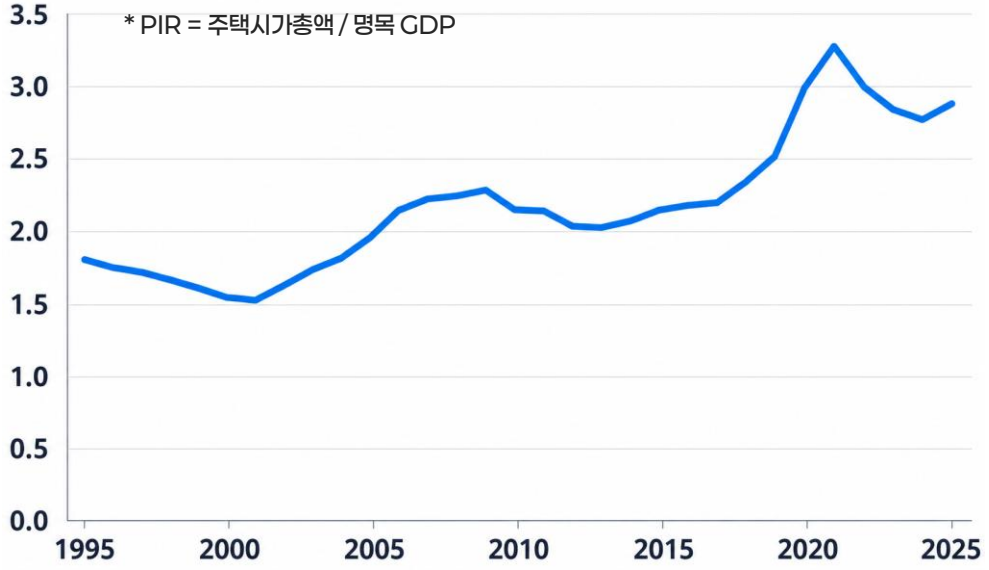
-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상승
- 주택가격 상승의 양면성 : 불평등 확대 불만 vs. 자산 증가 기대

자산 지니계수



출처 :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출처: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한국경제의 위기와 기회

AI 혁신과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는 한국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 유발

새로운 변수	기회 요인	위기 요인
AI 혁신	• 인구 감소 대응 • 생산성 제고 • 제조업 경쟁력 강화 (AI전환 성공)	• 경제 불균형 확대 • 소득분배 약화 / 사회갈등 심화 • 제조업 경쟁력 약화 (AI전환 실패)
자국중심주의 (보호주의 강화)	–	• 수출 감소 • 국내 제조업 기반 약화
자국중심주의 (미·중 갈등)	• AI 공급망 편입 및 경쟁력 확보 • 대중국 경쟁 제조업의 회복 기회	–

- 새로운 변수는 한국경제와 사회의 최소 20~30년의 미래를 좌우할 요인
- **`전망하는 미래`** 보다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 관점이 긴요

경제 · 사회 패러다임 **전환 과제**

새로운 변화를 기회로 만들려면 사회 전체적인 혁신 및 전환이 필요함

- 혁신과 시대 전환 성공의 결정 주체는 기술이나 환경이 아닌 `사람`, 파편화된 개인이 아닌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민사회
- 패러다임 전환은 혁신 과정에서
  기술 및 생산구조보다 변화가 더딘 하부체계와 사회제도의 틀을 전환하여 혁신과 시대 전환 대응을 지원

전환을 위한 질문 : 우리는 과거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가?



- 실패를 예측하고 막는데 세계 최고였던 시스템과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한 실패를 전제로 하는 혁신을 과연 진짜로 허용할 수 있는가? (행정, 예산, R&D, 기업투자 등)
- `수능 1점`의 공정과 사교육 대신 다양성과 사고력, 그리고 평생 전환 훈련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갈 수 있는가?
- AI 경제, A2A 거래 등은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
  경제 지표 측정의 공백, 혁신 촉진적 제도의 지체, 불균형 리스크 등에 잘 대비하고 있는가?

경제 · 사회 패러다임 **전환 과제**

[성공의 덫] 기성세대는 사회 전체의 레짐을 바꾸는 주체로서의 한계가 있음 (혁신 수용성 부족과 기득권)

-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혁신할 수 없음
- **혁신가의 딜레마** (Christensen,1997) : 기존의 혁신가가 이미 형성한 성과를 없애는 '파괴적 혁신'을 하지 못해 도태
- **혁신의 차단** (Aghion et al.,2022) : 기존의 혁신가가 새로운 혁신과 경쟁을 차단
- **카드웰의 법칙** (Mokyr, 2018) : 성공했던 국가가 기득권 저항 등으로 기술발전을 차단하여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국제적 주도권을 이양

미래세대가 경제 · 사회 패러다임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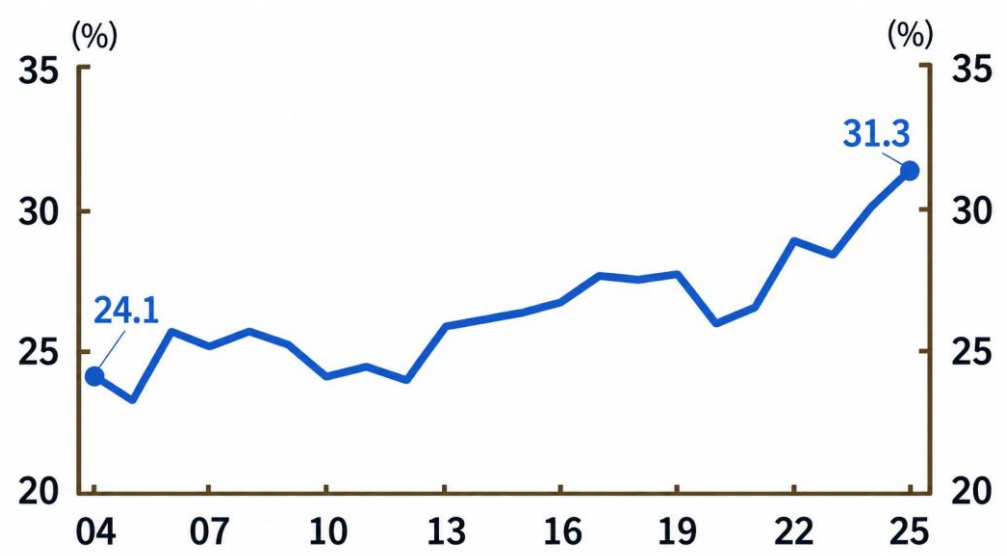
- 창조적 혁신과 시대 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미래세대가 패러다임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함

청년의 현재 (고용 구조)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 변화 → 청년층의 사회 진출과 정착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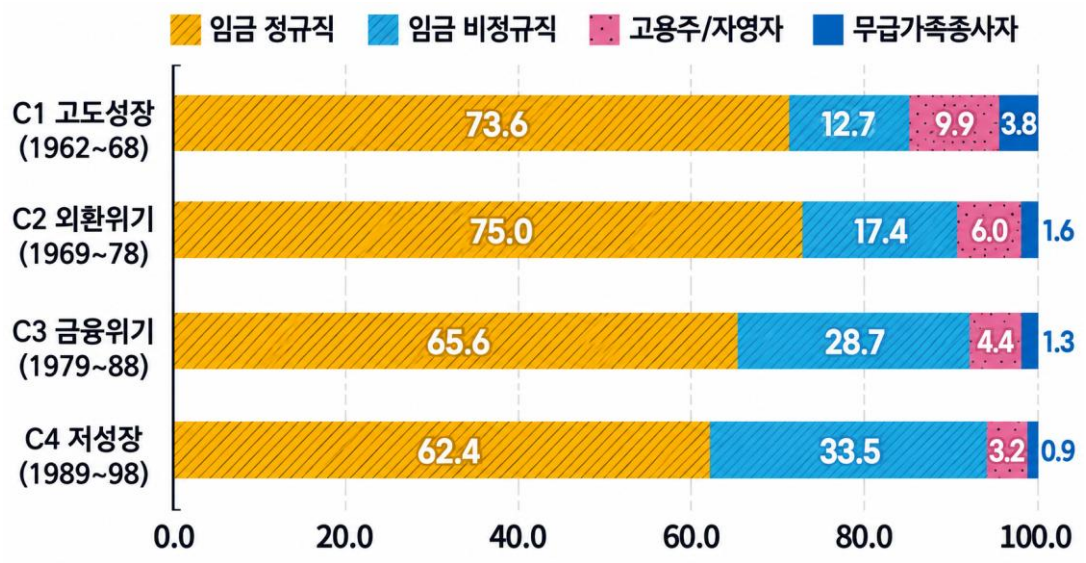
- 취업 소요기간 증가 / 비정규직의 첫 일자리 증가
- 첫 일자리의 제조업 비중 하락 : (62~68년생) 33.7% → (89~98년생) 16.3%, **17.4% 감소** 출처 : 안수지(2026)

첫취업 소요기간 1년 이상 비중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Cohort별 첫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분포



* 괄호 내는 출생연도
출처: 안수지(2026)

청년의 현재 (취업 불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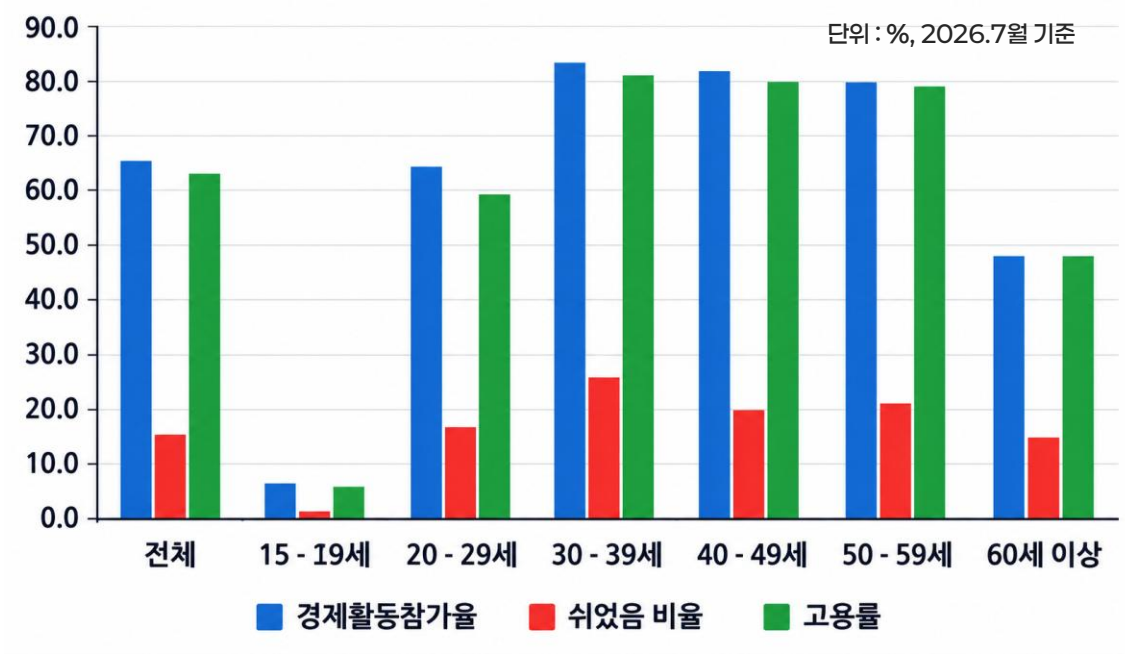
낮은 유지 취업률과 30대의 높은 쉬었음 비율로 취업의 불안정성이 증가

한국의 대졸자 취업 현황

	모든 대학 기준 (교육부)			4년제 일반 대학 기준 (통계청)		
	(1) 취업률	(2) 유지취업률	(3) 실질취업률	(4) 취업률	(5) 진학률	(6) 무소속
인문	58.2	74.2	43.2	52.8	7.0	40.2
사회	63.9	78.2	50.0	58.8	2.5	38.7
교육	63.1	81.6	51.5	47.8	6.3	45.9
공학	69.9	84.6	59.1	64.3	9.1	26.6
자연	65.0	78.2	50.8	58.2	16.3	25.5
의학	82.1	83.0	68.1	82.0	1.8	16.2
예체능	66.6	66.5	44.3	60.2	5.8	34.0

* 유지취업률: 취업자 대비 11개월 이상 취업을 지속한 취업자수
출처: 이수형(2023),『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 p.113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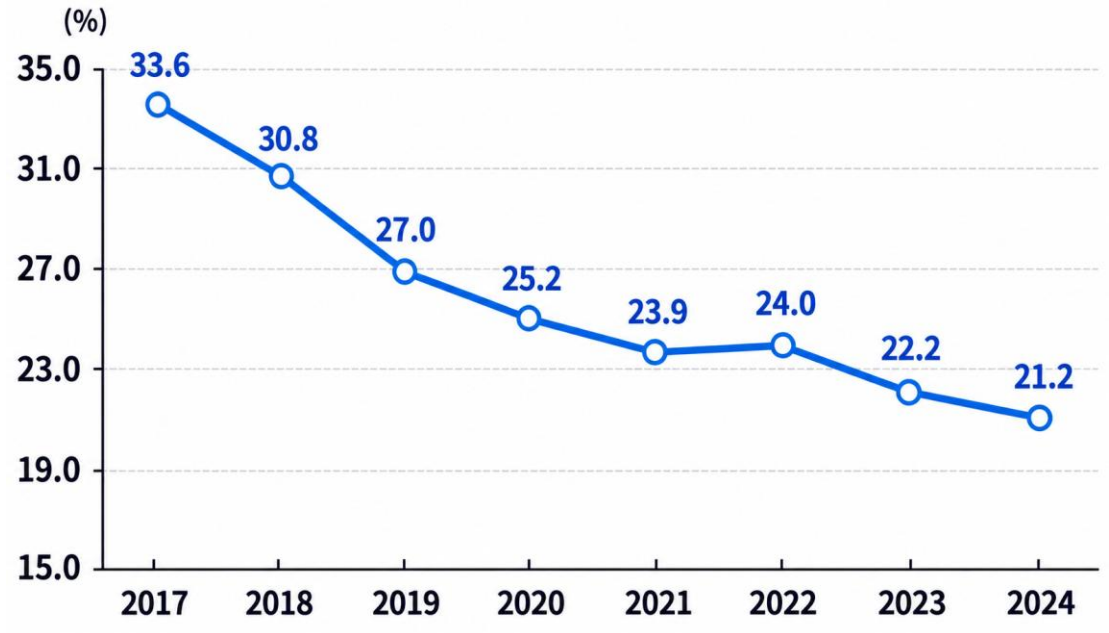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의 현재 (자산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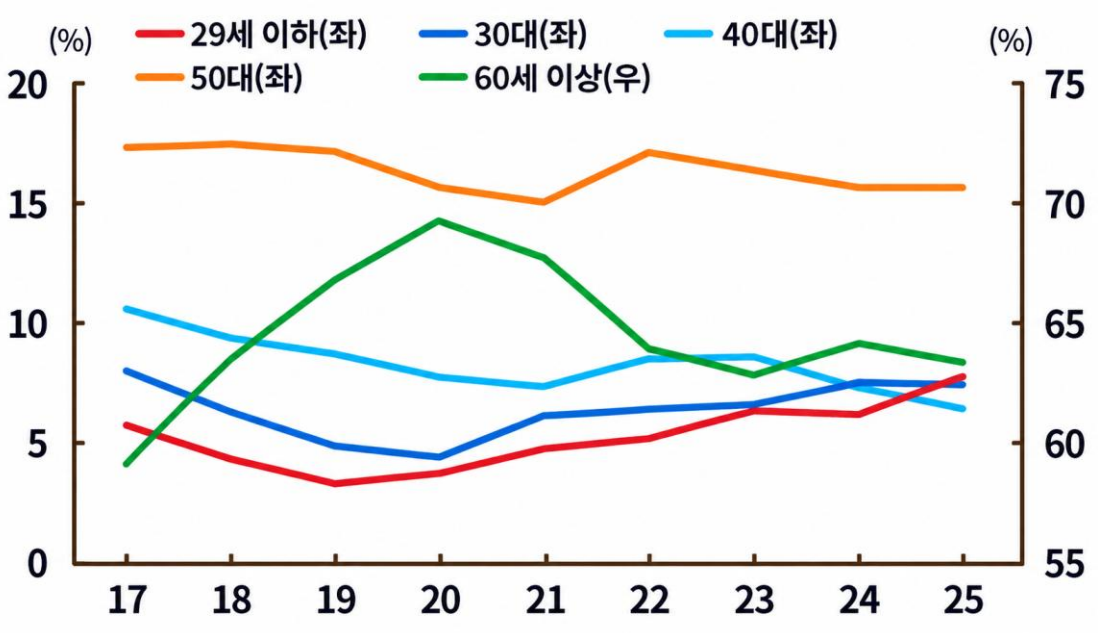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거복지 악화, 청년층의 자산불평등도 악화

청년 (19~39세) 자가주택 거주율



출처 : 김봉섭(2026) 국회미래연구원 Futures Brief 26-6호

순자산 · 소득 1분위의 연령대별 비중



출처 : 이재호, 김민정, 곽법준(2026), BOK 이슈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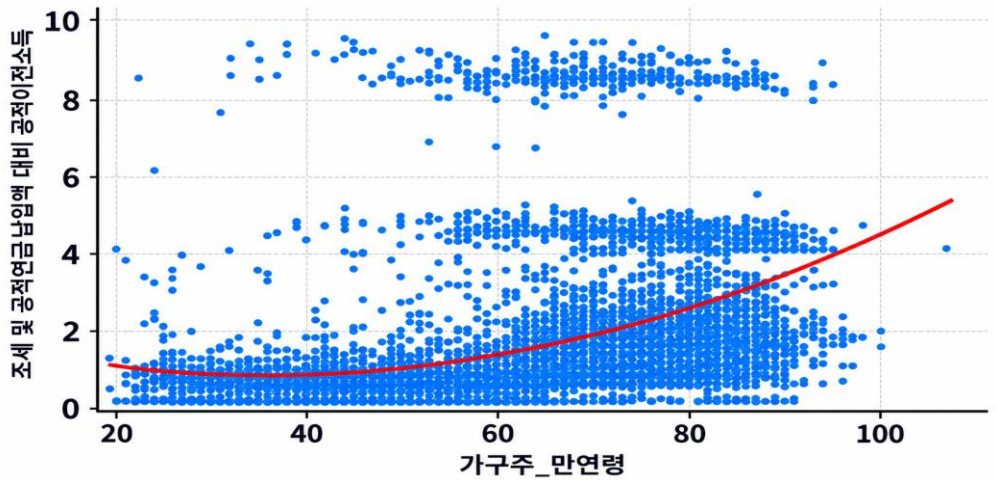
청년의 현재 (정치적 영향력)

청년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한계

- 청년세대의 조세부담액 대비 정부지출 편익이 가장 낮음
-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차
  : 세금 부과, 재정적자, 국민연금에 대한 기성세대와의 이견 발생
-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 세대의 정치적 대표성이 오랫동안 억눌려옴

분배정책이 기성세대로의 재분배 확대로 귀결

공적이전소득 / 조세 비율의 연령별 추이



출처 : 허석균, 강신욱, 김혜원 (2025)

역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연령 현황

	연령별 의원수					30대 이하 의원비율	30대 이하 유권자비율 (총 유권자 대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		
16대('00)	0	17	72	104	80	6.2%	51.9%
17대('04)	0	23	106	121	49	7.7%	46.7%
18대('08)	0	7	88	142	62	2.3%	43.1%
19대('12)	0	9	80	142	69	3.0%	38.6%
20대('16)	1	2	50	161	86	1.0%	35.5%
21대('20)	2	11	38	177	72	4.3%	33.7%
22대('24)	0	14	30	150	106	4.7%	30.7%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청년 세대의 **정체성** (분화된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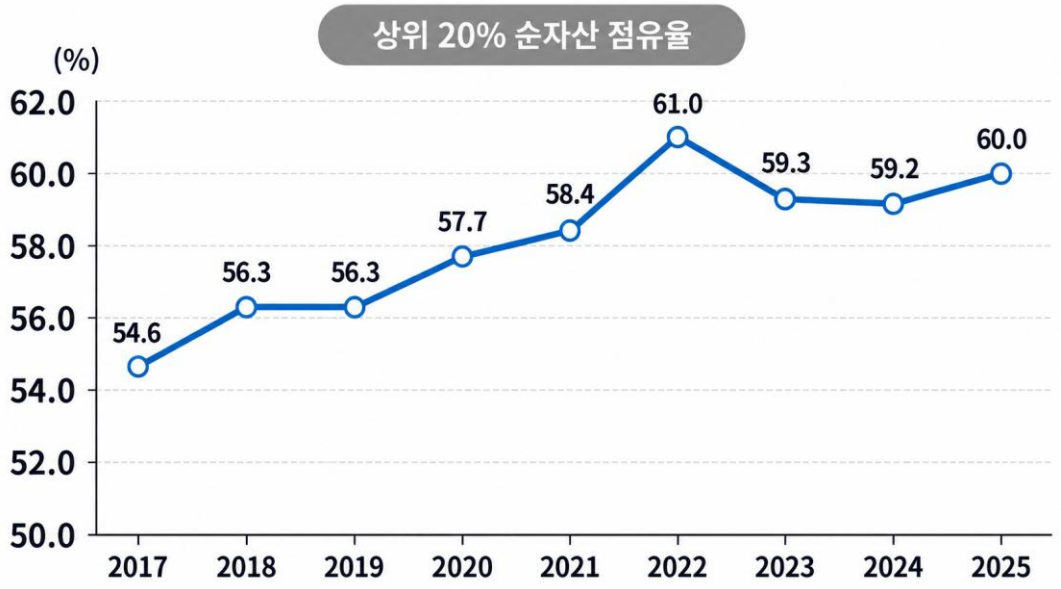
청년세대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오류

- 부모의 부나 교육 기회에 따라 청년간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 발생

20대라는 단일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 국민경제자문회의 (2026.5)
20대의 삶과 일 및 인식에 관한 전문가 심층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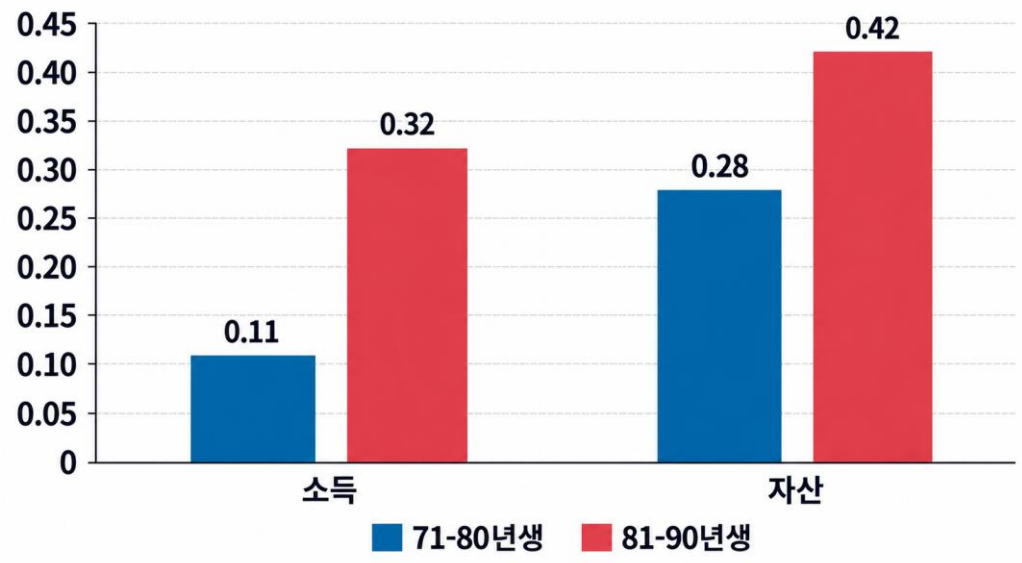
청년층 내 자산불평등



출처: 김봉섭(2026) 국회미래연구원「Futures Brief」26-6호

소득 및 자산 백분위 기울기

* 세로축의 값은 부모의 소득백분위가 1% 상승할 때, 자녀의 소득백분위 상승하는 비율을 추정한 기울기 값



출처: 정민수, 이다혜, Volker Ziemann (2026), BOK 이슈노트」2026-6호

청년 세대의 **정체성** (가치관)

청년세대를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고, 집단의 정치적 편향을 특정화하는 분류 방식은 오류

- 이념적 일관성이 아니라 정치가 자신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을 중심으로 판단

출처 : 국민경제자문회의 (2026.5)
20대의 삶과 일 및 인식에 관한 전문가 심층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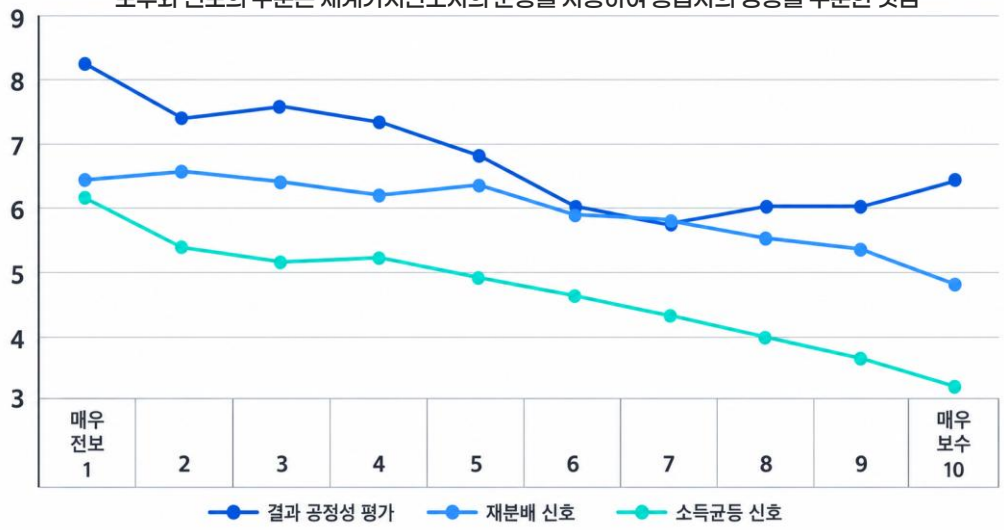
형평성보다 공정과 경쟁을 중시

- 다만, 형평성에 대한 요구는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차별화
- 공정과 경쟁의 중시는 기회의 희소성에 따른 생존주의 반영

출처 : 국민경제자문회의 (2026.5)
20대의 삶과 일 및 인식에 관한 전문가 심층 조사보고서

청년층의 가치관

*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세계가치관조사의 문항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성향을 구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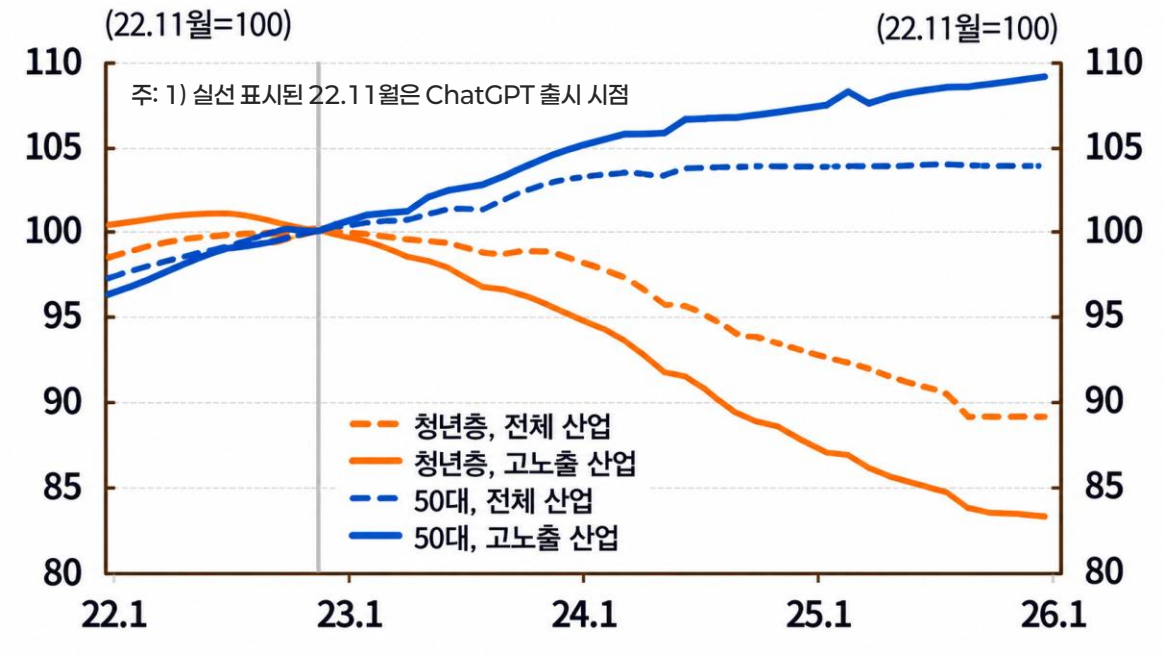


출처: 허석균,강신욱, 김혜원(2025), 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AI로 인한 위기 (청년층 신규고용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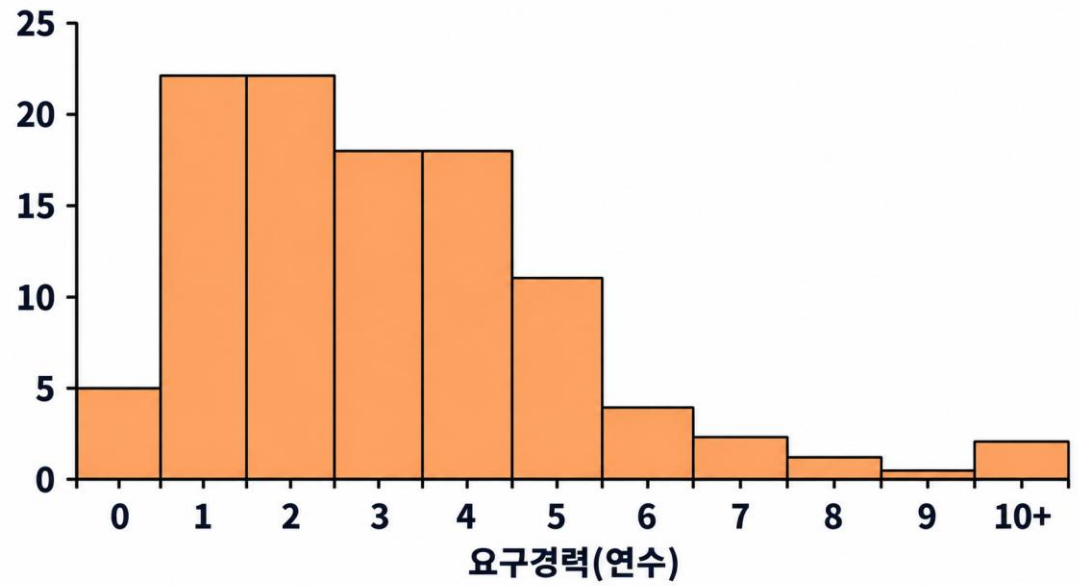
AI 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파급 효과로 청년층의 신규고용은 축소되고 경력자 우대 현상 뚜렷

AI 노출도 상위산업의 연령대별 취업자수 지수



출처: 이재호, 김민준, 곽법준 (2026)

신규채용 공고 시 경력 요구 연수 비중(%)



출처: Dodini and Smith(2026)

AI로 인한 위기 (AI · 청년 · 한국경제)

청년층의 취업 및 사회진입 지체는 한국경제의 위기 요인

AI 혁신의 정체



양극화 및 사회적 불안정성 심화



국가경쟁력 하락



대체불가능한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AI 역량을 갖춘 미래세대의 숙련과
암묵지를 보유한 기성세대의 결합이 필요

세대전승의 단절(제조업)

- 숙련의 경로 : 중간 정도의 전문성
  → 경험을 통해 고도의 숙련
- 청년층의 취업 저하는 암묵지의 세대 간 이전을 차단

미래세대와 함께 가기 위해 **생각할 것들**

- **청년세대의 어려움**은 외환위기 이후 체계화된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불평등 구조의 세대간 이전과 자산불평등의 확산이 가중

-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회를 주도한 **민주화 세대**가 경제적 부를 지속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만 확산

- 청년세대의 불만을 **기성세대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인 것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잣대의 판단이 부적절하며, **청년 세대를 동일한 집단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음

- 청년세대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한 세대로서의 **청년층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 미래세대인 청년과의 소통의 전제

- 청년세대를 **`위하려고`** 하기보다 비례적 의석으로 **`대표하게`** 해야



미래를 위한 **혁신과 시대 전환의 조건**

대전환기 기성세대 주도의 한계

- 사회적 분열을 통합하는 역량 부족
- 과거 성공에 얽매인 기존 가치관의 집착
-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존 경제사회시스템의 고수

미래세대의 역량 축적 기회의 부재

- 미래세대의 성장사다리 단절
- 형평성을 명분으로 한 공정과 경쟁 환경의 박탈
- 기성세대를 불신하고 파편화된 미래세대의 공동체 차원의 해법은 아직 충분하지 않음



사회주도 세력으로서의
미래세대와의 동행이
시대 전환의 전제 조건

정부 **전략**의 **보완**

현 정부는 AI 혁신과 국제정치,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미래의 장기적 번영을 위해 다음의 보완이 필요

사람에 대한 정책적 배려	물적자본 투자 지원을 넘어서는 인적자본 역량을 위한 체계적 정책 보강 필요
경제적 불균형과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대응 강화	과도한 불균형은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분열을 유발
시장 기능과 시민사회의 존중	시장과 시민사회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민주적 질서를 수호하는 강한 정부가 국가 번영에 기여
미래세대에 대한 진정한 접근	시혜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체계적 정책

미래세대와의 동행 전략

전략 1 공동체의 미래비전에 대한 미래세대의 발언권 및 의사결정권 비례적 보장

- 미래세대와 기성세대의 공존은 불가피
- 미래세대가 경제 및 사회의 시대 전환으로서 주역을 담당
- 민주화 세대는 경제성장의 암묵지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지원

기성세대는 의사결정의 권력과 의석을
미래세대에 배분할 수 있는
정치 · 사회 개혁을 실현할 책무가 있음

전략 2 포용적이고 혁신 수용적인 제도로의 전환

- 새로운 혁신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탄력적 제도의 마련
- 혁신의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설계
- 과거 혁신이 미래 혁신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는 공정경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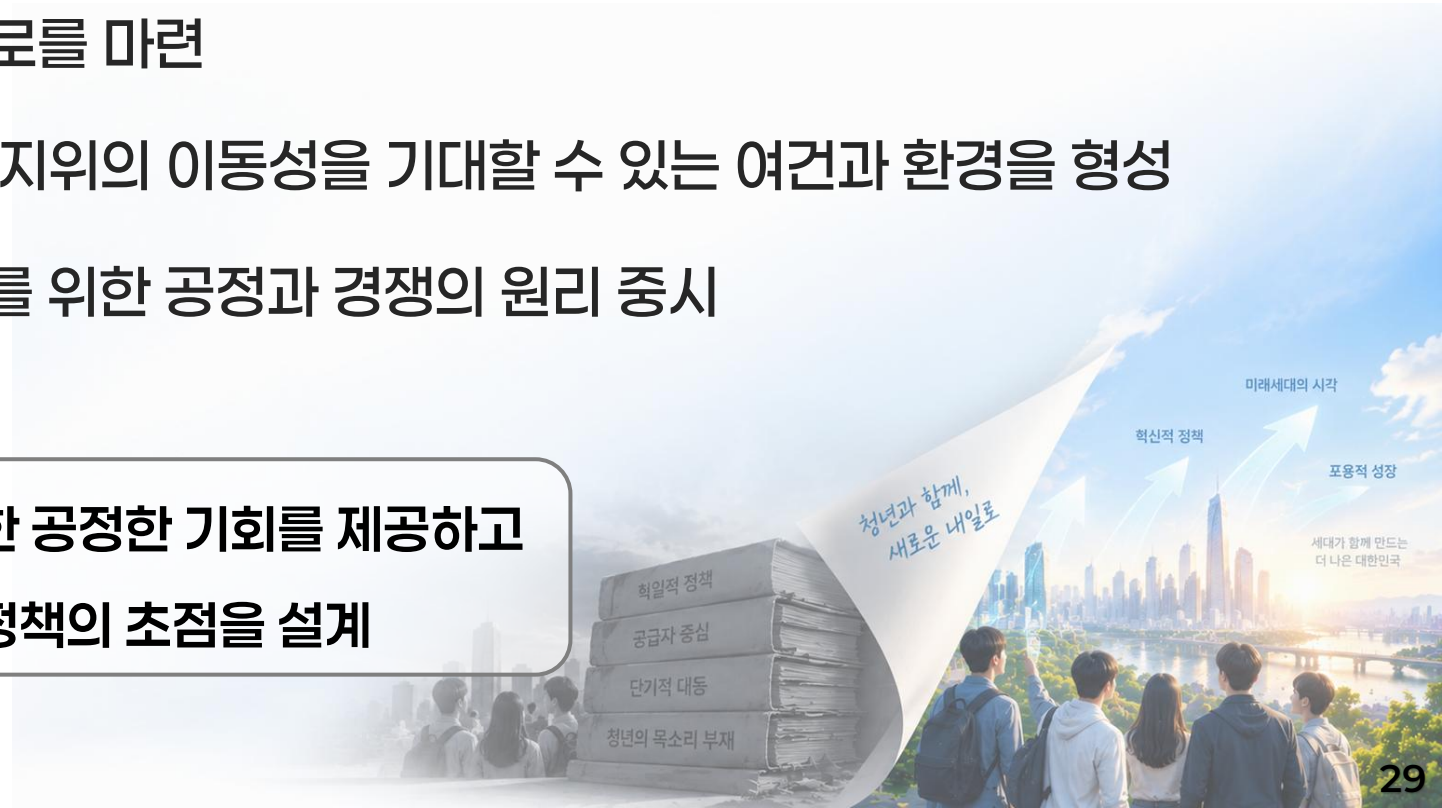
혁신과 시대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 전략을 수립

미래세대와의 동행 전략

전략 3 기존 청년 정책의 과감한 변화를 통해 미래세대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으로의 전환

- 청년이라는 세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은 없음
- 개인의 책임이었던 청년의 사회진입을 위한 역량과 통로를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한 통로를 마련
- 미래세대가 미래 비전을 갖고 사회적 지위의 이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형성
- 단순한 형평성보다 동태적 분배 강화를 위한 공정과 경쟁의 원리 중시

자신의 책임을 전제로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로의 진입을 지원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설계



미래세대와의 **진정한 동행**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초점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 · 포용 · 인적 역량 · 삶의 질을 키워드로 하는

중장기 국가 발전 비전과 전략에

미래세대가 **발언**하고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세대간 **공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